



예거 르쿨트르, 저명한 미국인 아티스트 마이클 머피와 협업하여 특별 제작한 새로운 설치 작품 공개

워치메이킹과 예술의 관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예거 르쿨트르는 저명한 미국인 아티스트인 마이클 머피(Michael Murphy)에게 새로운 작품을 의뢰했습니다.

*스페이스타임(Spacetime)*이라는 제목의 설치 작품은 공간의 정의에서 물리적 공간인 3차원과 시간의 공간인 4차원 사이의 관계를 탐구함으로써 매뉴팩처의 문화적이고 창조적인 세계를 더욱 확장합니다. 4월 14일 중국 상하이 워치스 & 원더스(Watches & Wonders)에서 첫 선을 보이는 *스페이스타임*은 올해 세계 주요 도시에서 전시될 예정입니다.

아나모르프즈

마이클 머피의 주요 작업은 관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의 설치 작품을 완벽히 감상하기 위해서는 관람객이 위치를 옮겨야 합니다. 그는 고전적인 예술 제작 기술과 디지털 프로세스 및 수작업 기술을 결합하여, 2차원 이미지를 공중에 매달린 3차원 모빌로 만드는 완전히 새로운 방식을 발명했습니다. 이러한 설치 작품은 다양한 높이와 거리에서 매달려 있는 수많은 오브제로 구성됩니다. 보는 사람의 시선에 따라 형태가 변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작품은, 겉보기에 무작위적이고 혼란스러운 형태에서 매우 체계적이고 인식 가능한 이미지로 합쳐집니다. 따라서 관람객은 예술 매체와 주관적 경험 사이의 장벽을 허물고 인지 변화를 경험합니다.

“마이클 머피와 협업하게 되어 기쁩니다. 그의 설치 작품은 예거 르쿨트르가 공유하는 가치인 높은 수준의 정확성을 요구합니다. 예거 르쿨트르의 CEO 캐서린 레니에(Catherine Rénier)는 "그랑 메종의



위치메이커들은 모든 독창적인 스케치와 밸런스 휠의 진동, 이스케이프먼트 휠에 심혈을 기울여 항상 정확성의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새로운 작품을 위해 그랑 메종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문화 아이콘을 기반으로 하여 아티스트와 협업을 진행했습니다. “[리베르소]는 이러한 상징적인 그래픽 아이덴티티를 지니고 있으며, 이것이 제가 자주 작업하는 콘텐츠 유형입니다.” 라고 마이클 머피가 설명했습니다.

*스페이스타임*을 통해 보여지는 시계는 새롭게 출시된 리베르소 트리뷰트 노난티엠으로, 각각의 페이스에서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시간을 표현합니다. 아티스트는 서로 다른 위치에서 시계를 보았을 때 완전히 다른 두 가지 이미지를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리베르소와 자신의 아나모픽 작품은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머피는 “제가 작업한 리베르소 디자인은 시계에 대한 이야기와 시계의 작동 방식을 알려주는 일련의 부분들이 결합되어 완성되었습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모든 작업 구성 요소로 나누고, 두 개의 서로 다른 착시 이미지를 만드는 방식으로 구성했습니다. 하나는 시계의 앞면을, 다른 하나는 뒷면을 나타냅니다.”

예술 작품을 구성하는 69 가지 구성 요소의 모양은 시계의 부품과 비슷합니다. 그러나 각각은 다른 무브먼트 조각과 다이얼 구성 요소로 사진 인쇄됩니다. 이러한 부품은 관람객이 설치 작품 주변을 돌아다니는 동안 완벽하게 정렬되었을 때만 리베르소 시계의 모습과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위치메이킹과의 평행선

리베르소와의 연결성 이외에도, 머피의 작업은 위치메이킹과 많은 유사점을 지니고 있으며, 그 중 고도의 정확성이 필요한 부분이 가장 유사합니다. 머피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입체적으로 일렬로 매달려 있는 수많은 오브제로 구성된 작품을 제작하며, 1mm 의 허용 오차만 다룹니다. 3.6m(12 피트) 높이 이상의 작품을 제작하는 저희에게는 1mm 의 오차가 작품의 정교함을 더해줍니다. 이를 통해 저희는 위치메이킹의 정확도를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시계 칼리버의 개발과 마찬가지로, 머피의 예술에는 집중력을 요하는 계획이 필요합니다. 관객이 이해할 수 있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각 구성 요소가 있어야 하는 정확한 위치를 3차원적으로 매핑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올바른 순서로 수행되어야 하는 75개 단계로 구성된 매우 복잡한 프로세스가 필요합니다. 시계 무브먼트에서와 같이 작은 요소 하나가 없어도 전체 작업이 실패하게 됩니다.

“스페이스타임” 설치 작품

새 작품의 제목인 *스페이스타임*은 매 순간 공간과 시간의 관계에 매료되어온 아티스트로부터 자연스럽게 탄생했습니다. 물리학에서 시공간은 공간의 3차원과 시간의 1차원을 하나의 4차원 다양체로 융합하는 수학적 모델입니다.

머피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제 설치물은 항상 4차원으로 구상했습니다. “저는 길이, 너비 그리고 높이에 의해 3차원 공간에 떠다니는 평평한 이미지로 구성된 착시 작품을 제작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작품을 경험하게 되죠. 이것이 바로 작품의 4차원입니다.”

예거 르쿨트르와의 협업은 문자 그대로 시간의 조각(time piece)을 만들고자 하는 아티스트의 열정을 충족시켰습니다. “시간은 저의 4차원 작품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저는 항상 시계 내부 부품의 미학과 그 정확성에 매료되었으며, 항상 시간에 관한 작품인 시간의 조각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마이클 머피의 *스페이스타임*은 관객을 위해 새롭고 독특하며 매혹적인 방식으로 시간 측정 및 위치메이킹의 아름다움과 정확성을 담아냈습니다.

마이클 머피 약력

마이클 머피(1975년생)는 지각 예술(Perceptual Art)이라 부르는 독특한 스타일의 작품 활동으로 가장 잘 알려진 미국인 아티스트입니다. 보는 사람의 지각을 강조하는 그의 기술을 “3차원 공간에서 선보이는 이미지의 착시”라고 그는 설명합니다. 초기 커리어에서 머피는 대학에서 미술을 가르치며 의뢰 작품을 제작했으며,



2013년부터는 예술 창작에만 전념했습니다. 머피의 가장 주목할만한 작품 중에는 중요한 사회적 이슈에 대한 성찰로 초대하는 *Gun Countr*와 *The Immigrant*가 있으며, 버락 오바마(Barack Obama)의 초상화 작품과 마이클 조던 및 나이키를 위해 제작한 작품도 있습니다. 그는 뉴욕 브루클린에 거주 중입니다. perceptualart.com 을 통해 온라인으로 그의 포트폴리오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리베르소 소개

1931년, 예거 르쿨트르는 20세기의 클래식 디자인이 된 타임피스인 리베르소를 출시했습니다. 격렬한 폴로 경기를 견딜 수 있도록 제작된 시계는 아르데코 라인과 독특한 회전 케이스의 디자인으로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아이코닉한 모델이 되었습니다. 90년이 흐르는 동안 정체성을 고스란히 간직하며 끊임없이 새로운 모습을 선보인 리베르소는 50개 이상의 다양한 칼리버가 탑재되었으며, 메탈 소재의 빈 다이얼 뒷면은 에나멜링과 인그레이빙으로 장식할 수 있어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캔버스가 되어 주었습니다. 오늘날, 탄생 90주년을 맞이하는 리베르소는 현대적인 스타일에 영감을 얻어 계속해서 새로운 모델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jaeger-lecoultre.com